

담양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전남도 주관 평가... 목표액 대비 3.33%p 초과 달성

담양군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전 직원이 함께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 대상액의 80.03%를 집행, 당초 목표 집행률(76.70%) 대비 3.33%p 초과 달성했다.

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적극집행 추진단을 구성, 정기·수시 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사업의 주기적인 관리와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를 점검하는 등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내수경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부문에서는 3·4분기 목표액 합계 대비 21% 초과달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집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함평, 노인 종합복지 예산 580억 원 편성

AI로봇·경로당 지원·돌봄서비스 등 확대 노인일자리 11.3% 증가·1670명 일자리

함평군은 올해 노인복지 예산 580억 원을 편성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CCTV 설

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됨에 따라 노인 1인 가구는 최대 32만318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 받는다.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자지원으로 위촉해 활

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교

동비를 지원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운영한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70명에게 노인일 자리를 제공한다

경로식당을 7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도시락을 배

달한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한 2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영광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비 등 업체당 최대 50만 원... 내달 1일부터 신청

영광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예 따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판매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판매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판매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 군정 혁신 활동 전개



화순군은 상향식 혁신의 지속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군정직원으로 구성된 MZ세대 모인인 '제2기 화순군 혁신 주니어보드'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2기 멤버는 7급 이하와 1980년 이후 출생 직원 26명으로 위캔팀, 베테팀, 스폰팀 총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이다. 선진지 견학 및 우수시책 발굴, 조

작문화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순군의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MZ세대 공무원의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발상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선 8기 비전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제2기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나주, 평생학습 '좋은정책상' 수상 ... 도내 유일 쾌거

청소년 대상 '에코 체인지 메이커' 사업 평가 우수



나주시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 성과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AWARD)'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세 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후원했다.

심사는 전국 189곳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원 도시와 교육지원청 74곳, 대학·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1차 심사에서 정책사업 97건을 추천내고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 15곳과 기관 5곳을 각각 선정했다.

나주시가 공모·수상한 평생학습 정책사업(명칭)은 '지구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에코 체인지메이커'이다.

2022년 교육부 지원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환경 생태 문제 발견과 해결 방안 설계, 지속가능한 모델 찾기 등 자주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자격을 취득한 경력단절 여성을 강사로 초빙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어가길 수 있도록 폭넓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성 '귀농귀촌 동네작가' 다음달 3일까지 모집

장성군이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마을 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귀농귀촌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업이다. 마을 이야기부터 농촌 생활, 영농 현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귀농과 농업 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정책, 성공 사례 등 귀농귀촌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도 제공한다.

작가들의 콘텐츠는 사진과 글, 동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되어 장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재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15세 이상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군 귀농귀촌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재 SNS 서포터즈 등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은 2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작가들의 귀농귀촌 콘텐츠를 누리집,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웃처럼 친숙하면서 재미있게 장성군 귀농귀촌 소식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임세희 기자

장흥,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저소득층 보장 확대'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장흥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과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 ▲2023년 자활지원계획 ▲2023년 자활기금 활용계획 ▲2022년 생활보장 소위원회

에서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심의내용 사후 심의 ▲2022년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심의 등이다.

김성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군민들이 인정감을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역 실태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장흥군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26가구 34명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량지의 봄



연둔리숲정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